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8 호

2023 년 5 월 17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1 기 결과공유
2. [Monthly Insights 5 월호] '10 년의 골든타임: IPCC 제 6 차 보고서와 대한민국 탄소중립' 요약
3. UNGC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워크샵(4/20) 결과 공유

■ 행사 소식

1. 제 5 차 유엔 책임있는 기업과 인권 포럼
2. 2023 UNEP FI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운드테이블
3. 유엔 지속가능발전 8 년 평가, 2030 년 달성을 위한 7 년의 행동과제

■ 본부 소식

1. UNGC 생활임금분석툴(Living Wage Analysis Tool) 론칭
2.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lobal Africa Business Initiative, GABI) 남아공 진출
3.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제언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국가철도공단

■ UNGC & 회원사 뉴스

1. 넥센타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ESG 경영 강화
2. "친환경 경쟁력 강화"...HMM, 컨테이너선용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연구
3. '차별없는 성장'...공정·포용·다양성 확보 정책
4. 거래소, SRI 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기간 2 년 연장...“ESG 투자 활성화”
5. 포스코, 2 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철강사...“ESG 경영 모범사례”

■ 회원사 안내

1. 신규 · 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1 기 결과공유

[2023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결과 공유

2023년 05월 16일

일시: 2023년 5월 10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위워크 서울스퀘어점

지난 5월 10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여성역량강화 인식 제고와 여성 리더십 증대를 위해 회원사 여성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위워크 서울스퀘어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네트워킹 이벤트에서는 제일기획 상임고문이자 최인아 책방의 대표인 최인아 대표와 외교부 문화협력 대사이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인 손지애 대사가 발표를 맡아 “직장에서 나 포지셔닝하기와 나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인사말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여성들의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GC는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더 좋은 기업을 만든다는 점(Gender Equality Means Better Business)을 강조하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2. 주제 강연: 최인아 대표, 손지애 대사

첫번째 발제는 최인아 대표님이 맡았습니다. 최인아 대표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자신을 브랜딩 하기 위해서 직장에 기여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자신을 브랜드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보며 시간과 함께 가치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커리어에 대한 관리,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내가 브랜드라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손지애 대사가 지금까지 아리랑 국제방송과 CNN에서의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손지애 대사는 △직장생활에서 실력이 바탕이 되어, △여성들의 실력과 함께 자신감이 조직에서 나타내는 것, △여성들의 존재감이 조직에 나타났으면 한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본인이 어떤 가치를 두고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이후 각 연사들의 상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3. 토크콘서트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이 참석자들의 질문과 함께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Q. 일을 오랜기간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노하우나 공유해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최: 어려움, 도전이나 문제가 같아도 개인이 처한 환경, 기질이 달라서 개인마다 통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에 따라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쓰임 받고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서 자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손: 새로운 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부분에 즐거움도 있었지만, 사회에서의 인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힘과 위안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Q. 여성 중간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자세는 무엇일까요?

최: 중간관리자가 되면 나 혼자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이 뛰어난 편이니,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손: 중간관리자는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어려운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나 주위에서 제가 닮아가고 싶은 롤모델을 찾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관리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소그룹 토의 및 네트워킹

마지막 순서로 행사에 참석한 회원사 여성 실무진들의 질문과 함께 비슷한 연차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직장생활 경험을 그룹별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하는 여성으로 직급별로 직장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어려움, 해결방안 등을 나누고 네트워킹 하면서 세션을 마쳤습니다.

문의: 정원영 연구원 (070-4327-5057, wchung@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Monthly Insights 5 월호] '10 년의 골든타임: IPCC 제 6 차 보고서와 대한민국 탄소중립' 요약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32 | May 2023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차 ■

1. [10년의 골든타임: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와 대한민국 탄소중립]
2. 전문가 인사이트 | 『Minal Pathak | AR6 핵심저자, Working Group III Co-Chair』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Gender Equality Korea(GEK) | Forbes ADVISOR: 2023 성별 임금격차 통계, Fast Retailing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1.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향후 10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년을 결정할 것이다”



2014년 제5차 종합보고서가 나온 지 9년만에 발간된 제6차 종합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주기(2015~2023년)에 발간된 3개의 특별보고서와 3개의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총 망라한 보고서입니다. 2001년, 2007년, 2014년에 순서대로 발표된 3, 4, 5차 종합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활동으로 일어난 확률을 각각 66%, 90% 이상, 95% 이상으로 예상한 반면에, 이번 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임을 “명백(unequivocal)”하다는 것,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 활동에 기인함을 밝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5차 보고서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금부터 10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수준으로 정책이 유지되어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NDC를 모두 달성한다 하더라도 남은 탄소예산*을 고려했을 때 파리 협정의 1.5°C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국이 NDC를 제대로 이행하더라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1.5°C 목표를 지키기 위한 기준)가 아닌 7%만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의 연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분석 또한 신규 NDC 또는 상향된 NDC를 국가들이 전부 이행한다 하더라도 파리협정 목표와의 배출량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IPCC는 2021~2040년의 가까운 미래에 지구 온도가 1.5°C 제한목표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며, 21세기 내에 지구 온도가 4.4°C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래세대가 겪게 될 기후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감축 이행을 통해 국가별 NDC를 높이고 배출량을 2019년 기준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69% 감축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Monthly Insights 5 월호에서는 IPCC 의 제 6 차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각국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인류의 교과서”라고도 불리는 IPCC 보고서는 “향후 10 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드

IPCC 제6차 종합보고서가 전하는 3가지 주요 메시지



Minal Pathak은 IPCC의 수석 과학자로 인도 아메드 바드 출신의 환경과학자입니다. 인도의 저탄소 시나리오, 수요 측면의 감축 옵션 및 지속가능감축목표(SDGs)와의 연관성을 중점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IPCC에서 기술지원단(TSU)으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IPCC 도시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출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있지만 여전히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번 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특히 세 가지 격차(gap)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1. 배출 격차(Emission Gap)

먼저, 국가별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아 국제사회가 합의한 1.5°C의 목표와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목표대로라면 2.2~3.5°C 상승이 불가피하기에 NDC를 더욱 야심차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목표 수립도 중요하지만 목표 이행에도 진전이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IPCC의 수석 과학자 Minal Pathak의 IPCC 제 6차 보고서에 대한 3가지 주요 메시지 (1. 배출격차 2. 적응격차 3. 기후 금융 격차)와 직면한 도전과제, 기후 변화대응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유럽연합의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성장세가 매우 크다. 자연과학 및 공학, 보건, ICT 분야의 과학기술인 중 여성의 비율은 41%이고, 그 중 6개국은 50%를 넘기도 했다. 반면, 제조, STEM 분야(보건 제외),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분야는 아직 격차가 컸다. EU의 STEM·ICT 분야의 50:50 성비 균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 여성 과학기술 인재 확대, 유럽에서 배운다

☞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방한 일정 중 EU의 공급망 ESG 실사 지침과 관련해 강연을 했다. EU의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ESG 이행을 의무화하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내 업계는 부담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침이 완전히 시행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며,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EU사법집행위원 "ESG실사 발효까지 4~5년...5월 한·EU 정상회담"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여성 과학기술 인재확대, 유럽에서 배운다 △EU 사법집행위원 "ESG 실사 발효까지 4~5년...5월 한·EU 정상회담" △S 혹은 G?... "ESG 평가에 사이버 보안 추가해야" △첫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등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GENDER EQUALITY KOREA >>

젠더이퀄리티코리아(Gender Equality Korea, GEK)는 우리 기업의 성평등과 여성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UNGC 한국협회가 런칭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본 플랫폼은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국내 및 글로벌 여성정책 동향, 기업 다양성 우수 이행사례, 젠더 투자 사례 등, 다양한 GEK의 콘텐츠를 매달 소개하고 있습니다.



[Forbes ADVISOR]
2023 성별 임금격차 통계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

GEK 코너에서는 Forbes ADVISOR 의 2023 성별 임금격차 통계, 개인간의 차이점과 성격을 존중하며 모두가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닌팀을 만들어 가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의준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5051)

자세히 보기

7. UNGC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워크숍(4/20) 결과 공유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워크숍 결과 공유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한국 워크숍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15:00-17:00

장소: 더 플라자 호텔 22층

지난 4월 20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국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 Empowerment Principles · WEPs) 한국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기업들을 위한 유엔의 성평등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대기업의 모범 사례를 통해 성평등을 향한 노력이 어떻게 더 좋은 기업과 사업을 만드는지를 다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전략기획, 인사,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은 강연을 듣고 직장, 시장,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문화를 실천할 현실적 방안을 공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듣고 노트를 필기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행사 참석자 단체 사진 >

1. 개회 및 환영사

여성역량강화원칙은 2010년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더 좋은 기업을 만듭니다(Gender Equality Means Better Business)'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전 세계로 가입 흐름이 확산 중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전 세계 150개 이상 국가에서 약 8000개 기업이 서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ESG 강화 흐름에 따라 가입자 수가 늘고 있고, 한국에서는 50 여개 기업들이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그 동안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여성역량강화원칙 (WEPs) 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기업 내 성평등 및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시장에 알리는 시그널이 되고, 나아가 보다 활발한 공유 및 논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 격차 완화와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저희는 기업이 혁신, 고용, 금융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남성, 가족, 공동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심 소장은 이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도 본 행사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돕고자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자리를 늘려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



<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 >

2. 1부 유엔여성기구 발표

1부 세션에서 화상으로 첫 발표에 나선 **안나 팔스 유엔여성기구 WEPs 글로벌 사무국장**은 "유엔여성기구는, 8,000개에 가까운 기업으로 이뤄진 세계적인 WEPs 네트워크에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면서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직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본 워크숍의 주요 발제자인 **박미화 유엔여성기구 WEPs 프로그램 글로벌 코디네이터**는 국내에서 젠더 요소가 ESG에서 다뤄지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에 유엔 여성역량 강화원칙(WEPs)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ESG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 젠더를 다룰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미화 유엔여성기구 WEPs 프로그램 글로벌 코디네이터는 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평등이 궁극적으로는 남성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남성 직원에게 젠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다른 남성들과 젠더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나 팔스 유엔여성기구 WEPs 글로벌 사무국장 >



< 박미화 유엔여성기구 WEPs 프로그램 글로벌 코디네이터 >

2. 2부 글로벌 기업 사례 발표

여성역량강화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뒤따랐습니다. 750개 모바일 운영사업자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GSMA의 타마라 단체바** 국제관계 선임 매니저는 경영진과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만다 게르베이 마스터카드 아시아태평양 지사 인사 및 역량 부사장은 남녀 임금 평등을 달성한 마스터카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스터카드에서는 매년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 하고, 격차가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며, 임금격차와 관련된 불만을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채널도 별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르베이 부사장은 "직원과 고용주가 소통함으로써 전 세계 마스터카드 직원은 평등을 누리고 있다"면서 "경영진의 업적 평가에서도 양성평등은 중요한 KPI로 다뤄진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세무·컨설팅 기업 120곳이 가입한 글로벌 네트워크인 RSM 인터내셔널의 캔디스 이튼 골 글로벌 다양성·포용성 리더는 “WEPs에 가입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 문제를 가시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성평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단순히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직원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네슬레의 놀루퍼 데미어콜 글로벌 다양성 및 포용성 책임자가 공급망에서 양성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네슬레의 노력을 소개하며 2부 글로벌 기업 사례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 타마라 단체바 GSMA 국제관계 선임 매니저 >



< 아만다 게르베이 마스터카드 아시아태평양 지사 부사장 >

(문의: 박영하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행사 소식

1. 제 5 차 유엔 책임있는 기업과 인권 포럼

**제5차 유엔
책임있는
기업과인권
포럼
온라인중계**

INVITATION

2023년 6월7일부터 6월 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5차 유엔 책임있는 기업과인권포럼 5th UN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5th RBHR) 이 개최됩니다. 이에 저희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후원으로 현지 포럼을 온라인으로 중계받아 동시통역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권경영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인권경영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2023년 6월 7~9일(수~금) 09:30 ~ 18:00 (중식 제공)

장소 코지모임 공간 강남역 2호점

비용 150만원(동시통역비, 식음료, 디브리핑 포함), 조기신청시(~5/26) 130만원

UNGC 한국협회 회원사의 경우 10% 할인 : 135만원, 조기신청 100만원

※ 3일 전일 150만원, 1일 50만원, 1일 참가의 경우 조기신청할인 적용 안됨

대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인권경영 관계자

방식 태국 방콕 현지 포럼 진행 내용 온라인 실시간 송출

내 용 ※ 아래 기재된 시간은 태국 현지 시간에서 2시간을 더한 한국시간임

시간	1일차 프로그램 _ 6/7(수)
11:00~13:00	PLENARY Opening Remarks, Keynote and Opening Plenary: From Commitment to Action
13:00~13:30	점심식사
13:30~15:00	PLENARY From 'Consultation' to 'Participation': A pathway to address power imbalances
15:00~16:30	휴식 및 네트워킹
16:30~18:00	PARALLEL SESSION Decent Work in Supply Chains
18:00~18:30	휴식 및 네트워킹
18:30~20:00	PLENARY Children's Rights and Responsible Tech in Asia-Pacific

KSA 한국표준협회

내용

시간	2일자 프로그램 _ 6/8(목)
10:00~11:00	1일자 포럼 내용 디브리핑
11:00~12:30	PLENARY Migrant Workers in Supply Chains: What does the future hold?
12:30~13:00	점심식사
13:00~14:30	PARALLEL SESSION A Climate Action Agenda for Asia: Priorities and entry points for action
14:30~16:00	휴식 및 네트워킹
16:00~17:30	Strategies to Advance Corporate Accountability on Human Rights: Lessons learned from Asia
17:30~18:00	휴식 및 네트워킹
18:00~19:30	PARALLEL SESS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Women's Leadership for Accelerating the Just Energy Transition

시간	3일자 프로그램 _ 6/9(금)
10:00~11:00	2일자 포럼 내용 디브리핑
11:00~12:30	PLENARY Addressing SLAPPs against HRDs in South-East Asia: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lessons learned
12:30~13:00	점심식사
13:00~14:30	PARALLEL SESSI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in Asia: Principles and practices in action
14:30~16:00	커피 브레이크 및 네트워킹
16:00~17:30	PLENARY Collective Ac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7:30~17:45	휴식 및 네트워킹
17:45~18:15	PLENARY Closing Plenary

※ 행사 내용은 RBHR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지하철 2호선 강남역(8번 출구) 도보 5분

신분당선 강남역(7번 출구) 도보 5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5 재전빌딩 2층

참가신청



신청
하기

문의

한국표준협회 박철혁 위원

T : 02-6240-4744

E : chpark01@ksa.or.kr

위 QR 스캔 혹은 배너 클릭으로 신청해주세요

※ 참가비 납부방법 : 사전계산서 발행 또는 당일 현장 등록으로 진행

참고

-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 행사 정보 : <https://www.rbhrforum.com/>

2. 2023 UNEP FI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운드테이블



2023 년 UNEP FI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탁회의에 대하여:

UNEP FI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탁회의가 5 월 24 일부터 25 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여의도 콘라드 서울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는 400 개 이상의 은행, 보험사, 금융 규제 기관,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단체 및 학계가 소집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과 녹색금융의 발전, 과제 및 솔루션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지역의 금융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외에도 연사와 참가자는 탄소중립 은행 및 보험, 금융 부문을 위한 지침 프레임워크로서의 ASEAN 녹색분류체계, 자연 관련 리스크, 금융건전성과 포용성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특정한 중요한 문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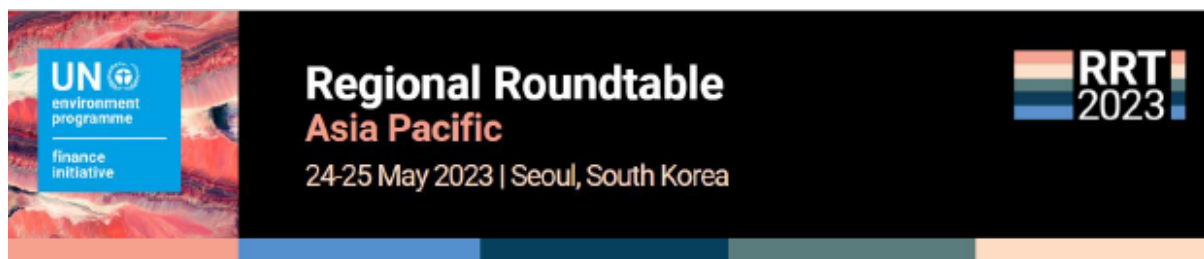
[사전등록 하기](#): 행사는 영어와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UNEP FI 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탁회의 개최 활동:

- [Read highlights from 2021](#), 2021 년, 온라인 개최
- [Read highlights from 2019](#), 2019 년, 중국 상해 개최
- 2017 년, 일본 동경 개최

주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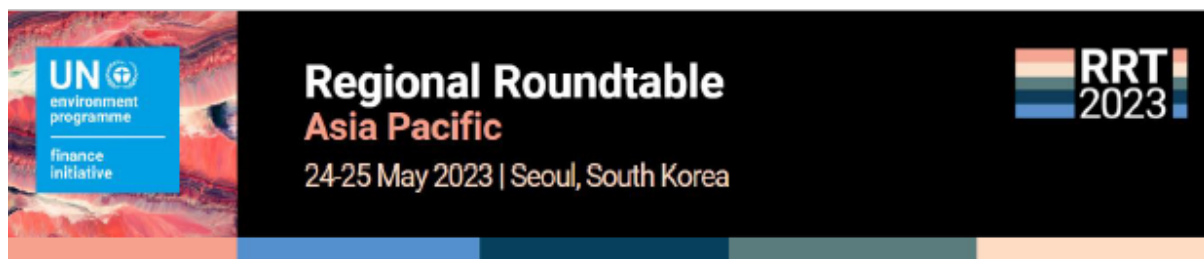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금융 규제 환경 강화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은행(Responsible banking)의 미래
- 자연 및 오염: 보험 산업의 역할 이해
- 금융 기관의 젠더 및 금융 건전성 문제 해결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기회 및 수단
-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자금 조달
-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삼림 벌채 위험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의미



전체 프로그램:

5/24 – Day 1

Time	Programme	
09:00	Welcome remarks • UNEP FI Eric Usher 대표 Congratulatory remarks and key notes •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 TBC •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UNEP FI Leadership Council 멤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	
09:45	Financing the transition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in Asia Pacific • Tae-Young Paik, Board Member, ISSB • Jeong-hoon Cho, Head of ESG division, Shinhan Financial Group • Henry Gonzalez, Deputy Executive Director, Green Climate Fund (GCF) • Esther A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ity Developments Limited (CDL) • Moderator: Eric Usher, Head, UNEP FI	
10:50	Break	
11:10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landscape of sustainable finance in Asia Pacific • Geetu Joshi, Economic Adviser, Ministry of Finance of the Government of India • Shigeru Arizumi, Vice Commissioner for International Affairs,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Vice Chair, IAIS Executive Committee • Pyoung-Seok Seo, Director of Financial Stability Department, Bank of Korea • Lyn Javier, Assistant Governor,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Achala Abeysinghe, Director & Head of Programs for Asia,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Moderator: Junice Yeo, Executive Director & Head of ESG Intelligence, Eco-Business	
12:10	What does the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mean for Asia Pacific • Kristina Anguelova, Head of Asia Sustainable Finance, WWF-Singapore • Romie Goedicke, Associate Nature Lead, UNEP FI • Speak invitation in progress	
12:35	Lunch	
13:35	Parallel sessions (Room 1)	Parallel sessions (Room 2)
14:35	Deep dive into impact and target setting for banks • Shanning Dong, General Manager, Green Finance Department, Bank of Jiangsu • Ikuo Ozawa, Deputy General Manager, Sustainability Planning Department, Mizuho Financial Group, Inc • Gabor Gyura, Capacity Building Coordinator, UNEP FI	The Net Zero Insurance Alliance in Asia Pacific • Hiroyasu Adam Ichikawa, Manager, Sustainable Management Department, SOMPO Holdings • Jooyoun Hong, Head of ESG Secretariat,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 Butch Bacani, PSI Lead, UNEP FI
14:35	Guidelines on adaptation and climate stress testing • Grace Tam, Director, Investments,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Climate-smart insurance solutions • Neha Yadav,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Descartes Underwriting



	• Remco Fischer, Climate Lead, UNEP FI • Alke Rabinsa Haesra, Senior Analyst, Climate Policy Initiative	• Farzanah Chowdhury, Managing Director & CEO, Green Delta Insurance • Butch Bacani, PSI Lead, UNEP FI
15:35	Networking Break (40mins)	
16:10	Need for active client engagement while decarbonizing portfolios • Monica Bae, Director, Investor Practice, the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 Tomo Ishikawa, Chief Regulatory Engagement Officer,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UFG) • Remco Fischer, Climate Lead, UNEP FI • Seiji Kawazoe, Global Initiative Fellow, Sumitomo Mitsui Trust Asset Management	Manag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 in life & health insurance business • Edward Moncreiffe, CEO, HSBC Insurance (Asia) Limited and HSBC Life (International) Limited • George Thomas, Professor (Research & Non-Life), College of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India • Butch Bacani, PSI Lead, UNEP FI
17:10	End of Day 1	

5/25 – Day 2

Time	Programme	
09:00	Opening remarks	
09:10	Parallel sessions (Room 1)	Parallel sessions (Room 2)
09:10	Addressing gender and financial health in financial institutions • Rajesh Malhotra, Chief Executive Officer at Maha Agriculture Microfinance • Tiffany Hodgson, Head of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Green Climate Fund • Joana Pedro, Social Lead, UNEP FI	Role of data in assessing and managing ESG risk • Simone Kramer, Head of Product, Net-Zero Data Public Utility • Tiange Wei, Asia-Pacific Lead, PCAF & Managing Consultant, Guidehouse • Dr. Guo Peiyuan, Chairman of SynTao Green Finance and UNEP FI Advisor in China • YoungJin Lee, Head of Korea, ESG Solutions S&P Global Sustainable1
10:00	Sustainable land use and deforestation risks in Asia Pacific • Wonsik Jeong, Investment Manager, D3Jubilee Partners • Hae Jun Yang, Deputy Senior Manager, Woori Financial Group • Romie Goedicke, Associate Nature Lead, UNEP FI	Opportunities and instruments for ESG Investing in Asia • Alexandra Boakes Tracy, President, Hoi Ping Ventures Hong Kong • Jinsuk Choi, Head of Sustainable Investment Team,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 Xiaotian Li, Marketing Director, Aegon-Industrial Fund
10:50	Finance perspectives on ocean health and plastics • Regula Schegg, Managing Director, Asia, Circulate Capital • Hae Jun Yang, Deputy Senior Manager, Woori Financial Group • Romie Goedicke, Associate Nature Lead, UNEP FI	Regulatory expectations on climate risk and biodiversit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 Adam Ng, Asia-Pacific Lead, GFRI and Sustainable Finance Advisor (Malaysia), WWF • Diana Parusheva-Lowery, Executive Director, Public Policy and Sustainable



		Finance, Asia Securities Industry &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ASIFMA) • Laura Canas da Costa, Senior Policy Expert, UNEP FI
11:30	Break	
11:50	Deep dive into nature-related disclosures: TNFD consultation • Hiroshi Takashima, Research Counselor and Head of Sustainability Research, The Norinchukin Bank • Hiroko Urashima, Manag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ction, Corporate Planning Department, MS&AD Insurance Group Holdings, Inc. • Romie Goedicke, Associate Nature Lead, UNEP FI	Embedding sustainability into the culture and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 Constant van Aerschot, Director Asia Pacific,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A4S) • Nirmita Talukdar, Regional Coordinator for Asia Pacific, UNEP FI • Mustafa Chaudhry, Digital Lead, UNEP FI
12:40	Lunch	
13:30	Keynote	
13:40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 just and inclusive transition: critical for a low carbon economy in Asia • Anouj Mehta, Country Director, Thailand Resident Mission, and Unit Head of the 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ADB • Yuki Yasui, Managing Director, Asia Pacific Network,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 • Masayuki Takanashi, Group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uO) & General Manager, Corporate Sustainability Department,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 Moderator: Joana Pedro, Social Lead, UNEP FI	
14:15	Achieving net zero in Asia Pacific • Herry Cho, Group Head Sustainability & Sustainable Finance, Singapore Exchange (SGX) • Tomo Ishikawa, Chief Regulatory Engagement Officer,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UFG) • Hye-Sook Moon, Managing Director, KB Financial Group • Masaaki Nagamura, General Manager International Initiatives, Tokio Marine • Moderator: Remoo Fischer, Climate Lead, UNEP FI	
15:15	The future of responsible banking in APAC • Luanne Sieh, Head of Group Sustainability, CIMB • Shanning Dong, General Manager, Green Finance Department, Bank of Jiangsu • Louise Kim, Director, Sustainable Finance (Seoul), ING • Moderator: Karine Bueno, PRB Review Lead, UNEP FI	
16:00	Closing remarks	
16:10	End of second day	

UNEP FI 에 대하여:

UNEP 금융 이니셔티브는 보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조치를 집합적으로 촉진하는 대규모 은행, 보험사 및 투자자 네트워크를 한데 모았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30 년 이상 지속가능금융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UN 과 전 세계 금융 기관을 연결해 왔습니다. 우리는 금융 산업이 글로벌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사무국이 소집한 450 개 이상의 은행과 보험사는 자산이 미화 100 조 달러를 초과하여 UNEP FI 의 책임은행원칙(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과 지속가능한 보험 원칙(PS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넷제로 얼라이언스. 금융 기관은 UNEP FI와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우리는 그들이 산업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비즈니스를 포지셔닝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과 도구를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1992 년에 설립된 UNEP FI 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금융 부문을 참여시킨 최초의 조직이었으며 현재 세계 최고의 책임 투자 지지자인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배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프리카 및 중동,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및 북미 전역의 지역 수준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의 구현을 지원하면서 리더십을 배양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관행을 발전시킵니다.

www.unepfi.org

연락처: UNEP FI 한국대표 임대웅 (Dae-Woong.Lim@UN.org, 010 3211 0430)

[참고] UNEP FI 한국 그룹

구분	기관
금융그룹(은행)	신한금융그룹, KB 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농협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BNK 금융그룹, JB 금융그룹, IBK 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보험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DB 손해보험, 신한생명, KB 손해보험,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
지원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BNZ 파트너스
협력기관(MOU)	국회예산정책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히 보기

3. 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과제

제6회 열린SDGs포럼

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과제

일시 2023년 5월 24일(수) 오후 2시, 5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주최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주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기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SDSN Youth Korea

유엔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2030의제(SDGs)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총 17개 목표 중 SDG6(물), SDG7(에너지), SDG9(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 SDG17(파트너십)의 이행현황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가 노력할 것을 약속한 유엔 SDGs, 앞으로 남은 7년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6번째 열리는 열린SDGs포럼은 이행점검 목표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7년의 행동과제를 모색합니다. 또한, 지방정부포럼을 통해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차원의 실천 방안도 마련합니다.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SDGs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를 살펴보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5월 24일(수) 오후 2시

지방정부 포럼 | 컨벤션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115층)

개회식 14:00~14:15

인사말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장

참석자 소개, 단체사진 촬영

지방정부 SDGs 우수 지자체 사례발표 14:15~15:15

사회 박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휴식 15:15~15:30

지방정부 SDGs 현황 점검과 방향 15:30~17:00

사회 박차옥경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발표: 지방정부 SDGs 이행 현황 및 추진 방향 -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토론: 박종길 대구시 달서구의원, 백순미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민은숙 사회혁신연구소 연구위원, 한순금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총무위원장

·종합 토론

폐회선언

행사진행 원칙

종이와 일회용품 없는 회의를 지향하며, 모든 자료는 온라인으로 공유합니다.

(온라인 참가 신청서 기재 메일로 링크 공유)

장애, 아동, 노인, 임신부, 외국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며 수어통역을 동시 진행합니다.

25일 행사는 [YouTube](#)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sdgnetwork@gmail.com
홈페이지 <https://sdgforum.org/>

5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본행사 | L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서울 중구 청파로 464)

개회식 13:30 ~ 14:00

사회 윤경효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인사말 - 외교부, SDGs시민넷 대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등

제1시간 14:00 ~ 15:30

2023 유엔 SDGs 국내외 이행현황: 물, 에너지, 산업, 지속가능도시 중심으로
2023년 유엔의 점검목표인 SDG6(물), SDG7(에너지), SDG9(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사회 객재성 경희대학교 교수(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부회장)

·발표1: 유엔 SDGs 이행현황 및 시사점 - 외교부 이은주 과장

·발표2: 국내 이행현황 관련 - SDG6 안중호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장

SDG7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DG9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SDG11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해관계자 그룹 패널 - SDG6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SDG7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SDG9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SDG11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

·전체토론(20분)

휴식 15:30 ~ 15:40

제2시간 15:40 ~ 17:30

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 과제

'2022년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중 한국의 주요 도전으로 나타난 SDG5(성평등),
SDG10(불평등해소), SDG13(기후변화대응), SDG14(수생태계),
SDG15(육상생태계), SDG17(파트너십)에 대한 개선 과제 모색

사회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발표1: <2023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과 글로벌 SDG 개선을 위한 한국의 향후 실천 전략 -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발표2: 통계로 본 한국의 유엔SDG 이행 현황과 향후 SDG 이행 개선을 위한

시사점 - 통계개발원 전준우 과장

·패널1: 김준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패널2: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패널3: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패널4: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패널5: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장

·전체 토론

종합 정리 및 폐회 선언 17:30 ~ 18:00(20분)

사회 윤경효 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본부소식

1. UNGC 생활임금분석툴(Living Wage Analysis Tool) 론칭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Living Wage Analysis Tool helps companies identify opportunities for continuous improvement in **fostering a living wage economy.**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 임금 보장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임금분석툴(Living Wage Analysis Tool)을 론칭하였습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은 이미 여러 글로벌 산업 분야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2019 년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저임금 현상은 빈곤 퇴치와 성차별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해당 분석 툴의 론칭에 대해 이와 같이 전하였습니다. "전 세계 3 분의 2 이상의 근로자는 민간 부문에 속해 있다. 이는 민간 부문이 생활임금 보장을 통한 글로벌 빈곤

퇴치와 경제적 불평등 해결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임금분석틀은 근로자의 생활 임금 보장과 가치사슬, 비즈니스 환경 전반에 걸친 기업의 인권 의무 이행을 도울 것이며, 생활임금 보장은 기업의 더 이상 사업 비용 증가가 아닌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가 될것이다."

생활임금분석틀은 UN Global Compact Think Lab on Living Wage 에서 기업 및 조직이 실제 기업 관행, 국제 표준 및 지표를 기반으로 한 주제 및 질문을 통해 개발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lobal Africa Business Initiative, GABI)

남아공 진출



2023 년 4 월 17 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C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ABI)가 소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CFTA) 사무총장 주도하에 개최되었습니다.

GABI 는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차장을 필두로 아프리카연합, UNDP, 유엔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 아프리카특별고문 유엔사무소 및 기타 협력기관이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로, 지속가능한 투자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여 AfCFTA 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연합은 2023 년 테마를 “AfCFTA 의 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역 이행 가속화”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AfCFTA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AfCFTA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GABI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GABI 는

아프리카연합을 포함해 광범위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한다. GABI는 아프리카연합의 2023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AfCFTA 이행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간의 협력을 이끌 것이며 아프리카 재계는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AfCFTA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전세계의 무역과 투자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국경을 넘어 원활한 무역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의 투자 증대, 아프리카의 창의문화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목표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은행은 AfCFTA 이행으로 지역소득 \$4,500억 증가하고, 여성 임금 상승이 촉진될 것이며, 2035년까지 3,0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3.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지난 4월 13일 UNGC 해양스튜어드십연합 (UN Global Compact Ocean Stewardship Coalition)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 봄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해양 투자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한 업계 지도자, 정책 입안자, 금융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번영을 위해 투자 전환의 핵심 요소를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결정된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 교육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확대는 재생에너지, 탈탄소 해운 및 항만, 양식업 등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양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투자가 더디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해양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 부문 리더,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의 역량구축 (capacity building)이 요구됩니다.

2. 지속가능한 해양투자를 위한 정부의 공약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각국의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위 정치 기관의 공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투자 전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테면 세금, 무역, 통화 정책, 인센티브, 표준의 변화 등과 같은 수단으로 이행을 가속화합니다.

3. 국제 금융 기관의 역할 확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은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대차대조표 확장을 비롯해 신흥시장, 신기술,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위한 솔루션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에 필수적입니다. 다자개발은행은 신기술의 금융 리스크 저감, 기존 기술의 확장, 투자 수단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 기관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4. 청색 금융 (Blue Finance) 이니셔티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제정
수많은 청색 금융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아직 그 형태가 복잡하고 여러 인센티브와 준거점(reference point)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시장참가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추가 비용이 들거나 리스크 증대의 위험이 있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이니셔티브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표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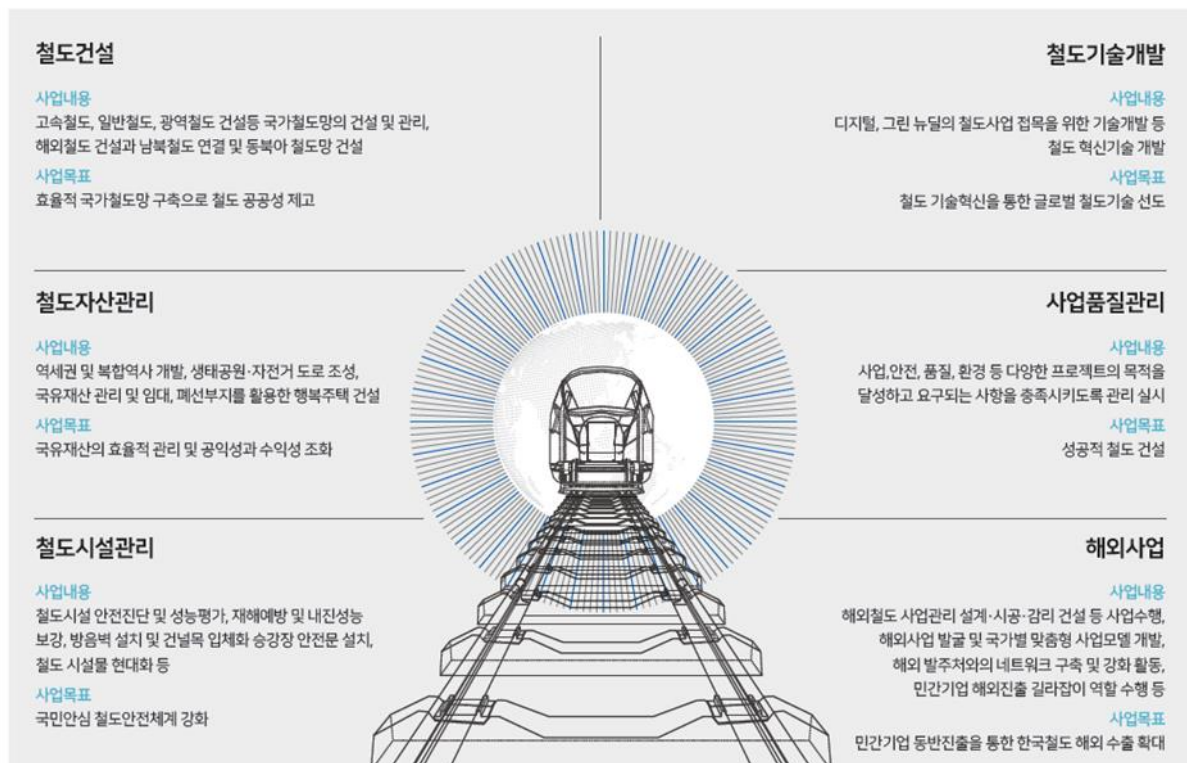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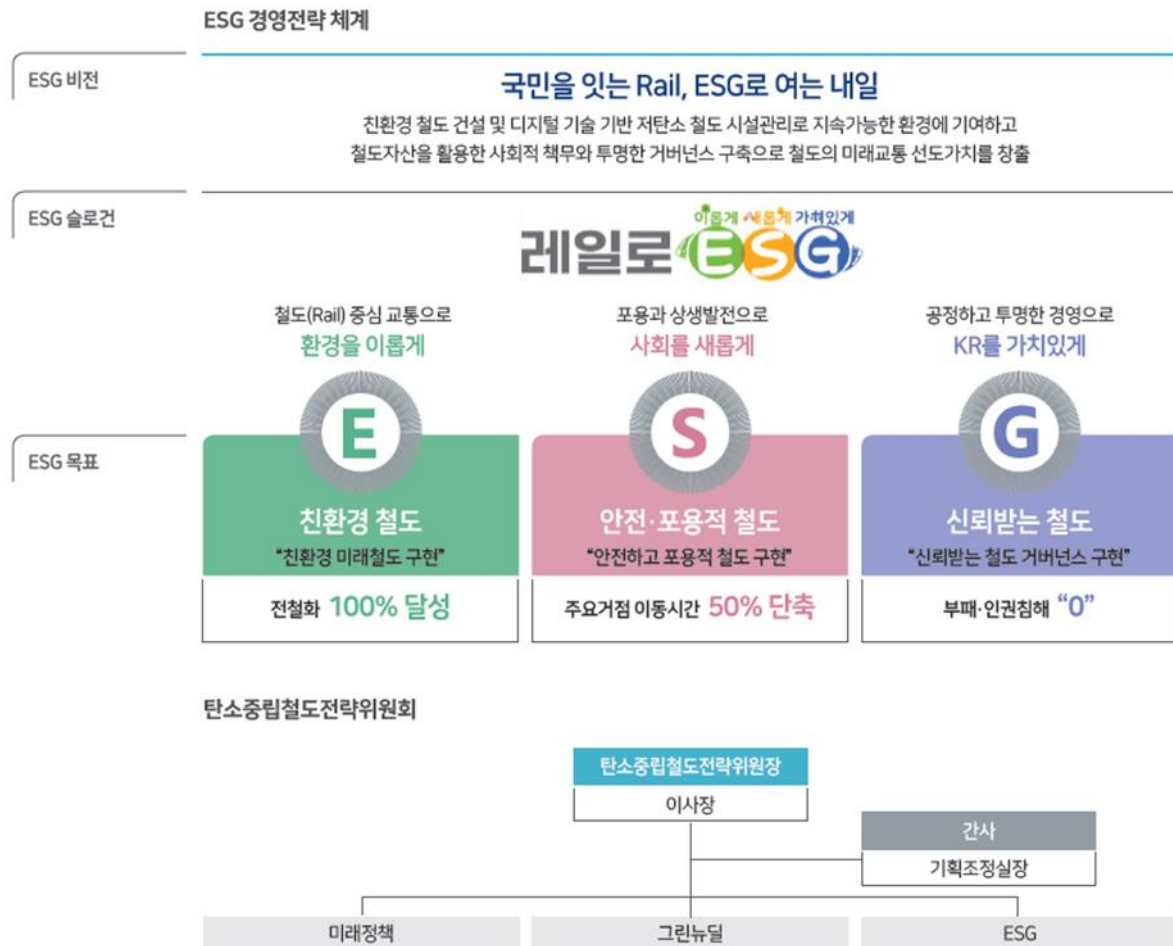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구현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4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교통 단절구간의 연결 확대와 고속철도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낙후지역과 대도시권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노후시설 개량과 안전·편의시설의 확충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철도건설을 통해 쌓아온 첨단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유라시아를 연결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철도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사업 소개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국가철도공단은 환경친화적이고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철도의 미래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 철도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한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KR 2030 미래상'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 ESG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도 모범적인 ESG 경영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로 가능 희망, 레일로 ESG

체계적 ESG 실천! 노사공동 ESG선언 및 KR-ESG지수 신규 개발
상생간담회 & ESG 컨설팅으로 민간 협력사 ESG 확산 적극 지원



환경을 이롭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KR 추진전략 수립

미래교통 핵심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30년까지 35% 달성
(현 철도 15%, 도로 84%)

'30년
35%

환경부 선정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12년 연속 감축목표 초과 달성!



사회를 새롭게

4년 연속 체불 Zero 달성!

인적오류 방지,
체불e제로시스템
고도화



국토교통부 선정
공공현장 적용대상 우수기술

LED 터널조명 등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3건



KR을 가치있게

'22년도 부패발생 Zero

부패취약 분야
건설현장 특화
집중 컨설팅



노동이사제 및 근로자참관제
신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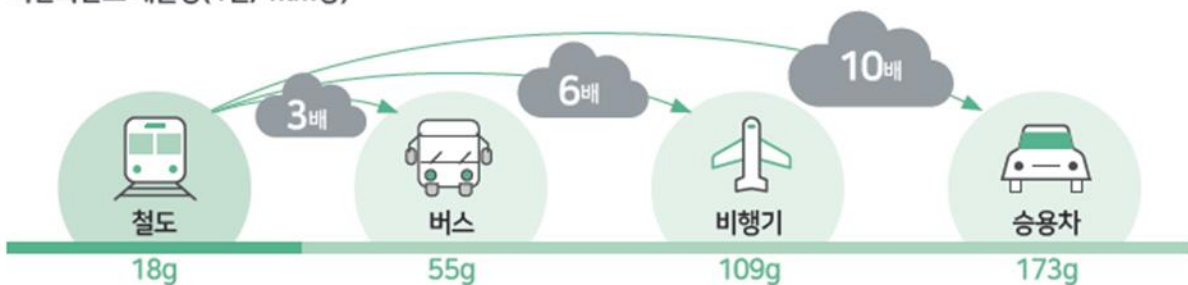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



3-1. 사례 : 친환경 전철화 사업 개통

국가철도공단은 축적된 전기철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전철화를 적극 추진하여 2022년에는 기준 연장거리 4,321km 중 3,427km의 전철화가 완료되어 2021년 대비 0.6% 증가한 79.3%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산~울산, 대구선 등 7개 사업의 전철화를 완료하고, 5개 사업을 개통하여 친환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1인/1km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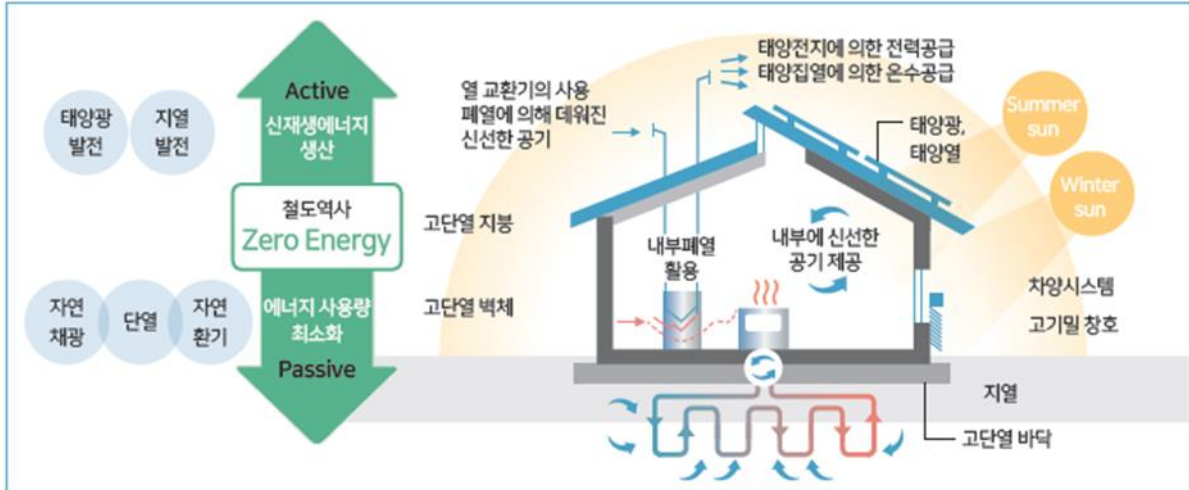


3-2. 사례 : 철도역사 제로에너지 추진

'제로에너지 철도역사'는 고단열, 고효율 설비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지열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입니다. 최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강화가 요구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의 확산이 필연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역사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에너지 자립률을 정부 목표 대비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충주~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신축 철도역사에 대한 제로에너지 예비인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타 철도건설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초기단계인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탄소저감, 친환경 설계를 제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3-3. 사례 : 협력사 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국가철도공단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기회 제공부터 직접 구매까지 중소협력사 판로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사업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철도산업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기압축기, 철도차량, 마일드스틸차체, 스크린도어 등 14 건의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였고, 몽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필리핀 해외사업 5 건을 수주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내부 인적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지원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안정적 기업 운영과 철도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지원 제도



동반성장 진출 플랫폼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UN-SDGs	국가철도공단의 주요활동
 Goal 1 빈곤의 종식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전사적 체불방지 운동으로 철도현장 체불 Zero 달성
 Goal 3 건강과 복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상시점검단' 운영과 '안전컨설팅' 운영 ·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립 및 확진자·접촉자 즉시격리 등 예방수칙 이행 · 비접촉 스마트 철도역사 도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Goal 4 양질의 교육	· 철도전문 인재양성 추진 체계화 · 이집트·베트남·몽골 등에 철도기술 및 철도사업 노하우 전수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국·내외 파견·위탁 교육
 Goal 5 성평등	· 육아휴직 기간 승진경력 100% 인정 대상 확대 · 임신직원 배려를 위한 '맘(Mom)편한 KR' 제도 추진 · 육아휴직 복직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직 직원의 안정적인 On-Boarding 지원
 Goal 7 지속가능한 에너지	· 철도역사 지붕 등 국가 철도 시설 활용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적용 역사설계로 에너지관리공단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 대전·충청지역 5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 혁신성장 인프라를 통한 상생형 생태계 조성으로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Goal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 · 노후화된 철도시설개량 및 노후 교량 현대화 ·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추진
 Goal 10 불평등 완화	·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고졸인력채용확대 등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 노력 · 불공정한 관행 전면 개선으로 중소기업 진입 장벽 제거 · 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으로 공공기관 최초 중기부의 "자상한 기관" 선정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 부산 해운대 옛 철길, 폐선구간 개발사업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운영 · 철도 교량하부 등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창업 플랫폼 구축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수도권 거점역의 철도 중심 광역환승방안 마련
	Goal 13 기후행동	· 온실가스 관리 감축목표 초과 달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 국내 최초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사업」 승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도역사 주차장에 전기차 '급속 충전장치' 도입
	Goal 15 육상 생태계 보호	· 철도건설 자원 재활용(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활동 강화 · 야생조류 충돌 감소를 위한 철도변 투명방음벽 개선사업 추진 · 철로주변의 유류로 오염된 폐자갈 재활용 사업추진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넥센타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ESG 경영 강화



- 넥센타이어[002350]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6 일 밝혔다.
- 넥센타이어는 UNGC 가입을 계기로 UNGC 10 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 경영 성과를 담은 노력을 공유한다는 계획.
- 넥센타이어 측은 "ESG 글로벌 표준을 내재화해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뉴스

2. “친환경 경쟁력 강화”…HMM 컨테이너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연구



- HMM은 삼성중공업 및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인 파나시아와 컨테이너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의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OCCS, Onboard Carbon Capture System)은 선박 운항 시발생하는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배출을 방지하는 온실가스 대응기술임.
- 향후 IMO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감축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선박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이투데이

3. '차별없는 성장' ... 공정·포용·다양성 확보 정책



- LG 에너지솔루션은 다양성(Diversity)·공정성(Equity)·포용성(Inclusion) 정책인 'DEI 정책'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최근 투자자·평가기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기업 DEI 증진 노력에 대한 공시와 지표관리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DEI는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DEI를 고려한 조직문화 관리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립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경향신문

4. 거래소, SRI 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기간 2 년 연장... “ESG 투자 활성화”



-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 채권)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자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025 년 6 월 14 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한국거래소는 2020 년 6 월부터 3 년간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음.
-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사회책임투자채권을 상장하는 기업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및 상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함.

5. 포스코, 2 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철강사... “ESG 경영 모범사례”



- 포스코가 18 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회원사 회의에서 2 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에 선정됐다고 24 일 밝혔다.
- 포스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멤버에 선정된 철강사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ESG 경영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됨.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과 ESG 경영 이행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한 성과”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100 년 기업의 토대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 재가입 회원

4 월 20 일부터 5 월 17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SK 바이오팜
- 하나투어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 COP/COE 제출회원

4 월 20 일부터 5 월 17 일까지 9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 내부장애인협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CJ 제일제당
-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
- 강원도개발공사
- HLB 테라퓨틱스
- 송원산업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 년도 개정 COP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 회원

2023 년도 개정 COP 정책 도입에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초,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는 오는 2023 년부터 영리 회원사들이 모두 응답해야 하는 COP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한국협회에서는 총 13 개의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 참여사가 제출한 COP 는 UNGC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고무벨트
- DRB 동일
- DGB 금융지주
- 만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애크온캐피탈
- HK 이노엔
- 유한킴벌리
- 콜마비앤에이치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
- 호성첨단소재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비영리 회원사는 내년도 동일하게 기존 COE 정책대로 COE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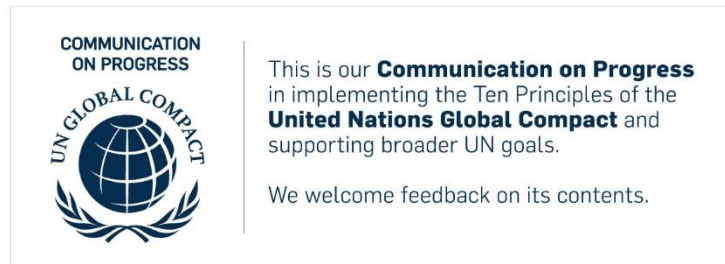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